

---

## 6.25전쟁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은정

---

조은정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단 주간을 역임하였고 대원사 기획실장, 서울벤처정보대학 원대학교 문화산업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한남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제2회 조각평론상을 수상하였고 미술평론가이자 미술사학자로서 『권력과 미술』, 『조각감상법』, 『권진규』, 『한국조각미의 발견』, 『한국전쟁기 북한미술인의 전쟁수행역할에 대한 연구』, 『이승만 동상 연구』, 『1950년대 한국미술에서 타자읽기』 등의 논저를 저술했다. 미술을 통해 사회의 변동과 역사성을 읽어내며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동, 서양 근현대미술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 Korean War and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 Eun-jung

(Art historian, Joint Professor of Hannam University)

In August 22, 1946, due to the resistance to the law, article number 102,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went on strike. Therefore, the first actual classes started on September 28th, which was about a month later. As other universities, such as the Imperial College (경성제국대학), had already started classes,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nd Music in the College of Fine Arts were the only departments that were opened and offered classes to freshman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equently, the first graduating students in College of Fine Arts graduated in the fourth yea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eoul was under the rule of North Korea 3 days after the war broke out, artists were brought in to draw portraits of Kim, Il-sung and Stalin. Also the art professors or students who could not move further south in time, or who could not hide, had to draw portraits of Kim, Il-sung and Stalin and make flags with slogans. After the South Korean army recaptured Seoul on September 28, the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rt, Ko, Hee-dong,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Jang, Bal had played the key role in starting traitor evaluation. Around this time, the art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who majored in ar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joined the military as artists. They even received I.D. cards for being military artists. However, the problem of deciding on belonging to South or North Korea through ideological ideas or circumstances could not be avoided in Universities as well. Therefore, students had crossed over into South or North Korea, joined a commando unit, became an air student soldier (학도의용군), etc.

A lot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rts under the rule of North Korean Army, went to North Korea, and a few of them even became partisans since they were worried about the reprisal. Even during the chaos of the war, the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able to exist by teaching in ref-

uge coffee shops and temporary school buildings, moreover by fostering major Korean modern artists.

In a Busan refuge,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ecame independent from the Department of Arts, Fine Arts major, and was considered to be an individual college itself. Also, since they had the first master's degree graduate students in 1952, they established a firm foundation for being the central place of to foster talented artists. The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used a dining room in a sushi restaurant in Busan as a classroom. However, because the U.S. had provided support, they built a temporary school building in Song-do and held lectures and practiced arts there. Also, the College of Fine Arts even accepted students from North Korea to cultivate talented artists. A lot of talented students had appli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tuition was only one-tenth of other private colleges, and the school also gave out large amounts of scholarships.

Even during the war, the College of Fine Arts turned out graduates constantly every year and cultivated leaders in contemporary art; in the years 1951, 1952, 1953, they had turned out 14, 3, and 6 graduates, respectively. However, the scars due to the war such as, the traitor evaluation under the rule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professors' evaluation of students who rebelled and held kangaroo courts against the professors, and so on, have been named as trauma. The first Dean, Jang, Bal's authority became the target of criticism, especially due to excessive anti-communism and using religious beliefs as the standard of evaluating professors. Although the truth of the boycott against Dean Jang, Bal during the war was ambiguous, the students' harsh criticisms on curriculums that had personal perceptions on class contents could be considered as one part of the movement to restore their own autonomous right.

Moving south or north over the border signifies separation and continuity of severance, but some students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worked in North Korea, and the students who moved south over the border could start a new kind of art in the College of Fine Arts. Also, since the school building was transferred over by the U.S. army due to the armistice, in 1953 Seoul National University returned to Seoul. As the College of Fine Arts had eventually settled in Dong-soong Dong, Seoul the following February, it took its place as the art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fosters artists even when suffering from the aftereffects of the war.

Key words: Korean Wa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Jang, Bal, Anonymous Political Prisoner, military artists, Busan

I. 머리말

II. 전쟁기 서울의 미술대학

1. 교수들의 동향

2. 학생들의 행보

III. 부산 송도의 미술대학

IV. 맺음말

I. 머리말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대한 반발로서 맹휴(盟休)로 시작한 서울대학은 1개월 후인 9월 28일 첫 강의를 시작하였다. 9월 5일 경성대 이공학부 38명의 교직원 전원이 총사직을 결의하는 등 대대적인 국대안 반대운동으로 개강이 늦어진 때문이었다.<sup>1</sup> 좌익계열에 의한 혼란 목적이라는 미군정이나 경무대의 발표와 달리 대학운영의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미군정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며 교수들의 자치가 보장되지 않고 좌익계열로 보이는 교수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점 때문에 국대안 반대운동은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sup>2</sup> 국대안에 반대하여 학교를 떠난 많은 학생들 중 일부는 사상검사에 의해 복교가 불허되었고, 국대안 문제로 떠난 교수들은 돌아올 수 없었다.<sup>3</sup> 결국 좌익계열을 대학에서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1949년 학도호국단이 창설되었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까지도 편입되었던 정황은 국가지상, 민족지상주의에 따른 사상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 중 하나였다.<sup>4</sup>

6.25전쟁을 겪으며 남한사회는 반공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집약시켜 나갔다. 전쟁 중 부역을 하거나 사회주의에 동조했다는 명목으로 서울대학교를 떠난 교수는 119명이었는데 이 중 예술대학 미술부 교수는 없었다. 국대안과 연관하여 대학을 그만두었던 김용준이 인민군 치하에서 학장직을 맡았다가 월북하였고, 학생과장 윤승욱이 은신중 행방불명된 뒤였다. 이는 또한 김용준은 전쟁 이전에 학교를 그만 두었던 터였고, 종적을 알 수 없는 윤승욱은 국대안 파동에서 양심을 품은 좌익학생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유영국을 장발 학부장이 사퇴시킨 이후였으며 인민군

1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2. 국대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국대안에 대한 많은 논의 속에서 교수자격에 대한 다른 논의로는 정국로, 『한국학생민주운동사』, 도서출판 반, 1995, p.113 참조.  
3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5.  
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pp.258-265.

치하에서 동맹에 나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협조 혹은 부역으로 보지 않았던 때 문이기도 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 들자 미술인들은 동원되어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 등을 그렸는데 미처 남으로 가지 못하거나 은신하지 못한 미술부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이곳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을 그리거나 구호가 적힌 만장을 만드는 등의 일에 동원되었다. 9월 말, 서울이 수복되자 대한미협 회장인 고희동과 서울대 미술부장인 장발 교수가 주축이 된 부역자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즈음 결성된 종군화가단에는 서울대 교수들이 속하여 종군화가로서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고, 대학원생급의 학생들도 종군화가단에 속하였다.<sup>5</sup> 하지만 월남과 월북 그리고 학도의용군과 유격대에의 참여 등 사상에 따른 혹은, 정황에 따른 이념적으로 보이는 남과 북의 소속에 대한 선택의 문제 또한 대학을 비켜가지 않았다. 전쟁기 혼란과 많은 사건 속에서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피난지의 다방과 가교사에서 미술대학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현대 한국화단의 주역들을 양성하였다.

## II. 전쟁기 서울의 미술대학

1949년 4월 예술대학의 음악부는 남산 옛 경성음악학교 건물로, 미술부는 문리대 옆 옛 중앙공업연구소 자리로 이전하였다. 예술대학으로서 함께 운영되다가 음악부와 미술부가 분리하여 교육할 건물을 갖게 된 것이지만, 미술대학에 배당된 건물을 법과대학이 비워주지 않았던 때문이다. 법과대학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문리과대학 부속건물을 사용하게 된 미술부는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 분규는 11월에야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내용은 연구실을 둘러싼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의 갈등이었지만 실은 경성대학 법문학부 중 문과는 문리과대학으로, 법과는 법학대학의 일부로 편입하라는 이사회와 교수집단과의 갈등에 의한 것이었다. ‘무시못할 힘을 갖춘 단과대학’ 사이에서 미술부가 치러야

5 조은정, 「한국전쟁기 남한미술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연구-종군화가단과 유격대의 미술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pp.139-194 참조.

했던 교사분규는 서울대학 내에서도 신생 단과대학이 겪어야 했던 문제이기도 했다.<sup>6</sup>

미술대학은 개교 당시에는 회화과, 조각과, 도안과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개강 때는 회화과가 동양화를 전공으로 하는 제1회화과, 서양화를 전공으로 하는 제2회화과, 조각과, 도안과로 나누어 설강되었다.<sup>7</sup> 이때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서 취득학점에 따라 졸업을 하는 제도였지만 실기가 있는 미술대학은 다른 대학보다는 학년제가 비교적 지켜진 것 같다. 학사학위에는 공학사, 농학사, 문학사, 이학사, 법학사, 상학사, 경제학사, 미술학사, 음악학사, 의학사, 치의학사, 수의학사 등이 있었고 미술대학의 석사학위 수여는 6.25전쟁기 피난지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sup>8</sup>

전쟁 발발 전 국대안에 반대한 미술부 서양화를 전공한 학생 김진항(金鎭恒)은 퇴학당하고 20여 명이 등교를 거부하였으며, 김용준, 김환기, 길진섭 등 세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였다. 장우성은 미술부 장발 학장이 사표를 반려하였다고 전하지만 길진섭이 전쟁 전 월북한 것에 비추어 보건대 다른 교수들처럼 복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sup>9</sup> 따라서 6.25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수들과 강사들 명단은 다음 <표1>과 같이 정리된다.<sup>10</sup> 이들은 서울에서 그리고 피난지 부산에서 학생들과 함께하였지만, 당시 교수 채용 과정이 학과별 혹은 단과대별로 이루어졌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채용일과 퇴직일을 파악하기 어렵다.

6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7.

7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23.

8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35.

9 장우성, 『화백인맥』, 중앙일보, 1982, p.93.

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서울대학교미술대학, 1993. 이 책의 부록에 정리된 역대 교수 강사 명단에 의거하여 파악함.

&lt;표1&gt; 6.25전쟁기(1950-1953년) 미술대학 재직 교수, 강사 명단

학과	직위	성명	재직 기간 (『미술대학사』)	기타
동양화	교수	장우성	1946. 10. 22 - 1961. 10. 22	
		노수현	1948 - 1961	1948년 강사, 1949 - 1962 교수
	강사	이윤탈	1948. 10. 1 - 1952. 7. 31	
		김용진	1948. 10. 10 - 1954. 4. 20	
		홍이섭	1952. 5. 10 - 1954. 4. 20	
서양화	교수	배렴	1952. 10. 1 - 1966. 3. 9	
		장발	1946. 10. 22 - 1961. 5	
		이재훈		『서울대학교 40년사』에는 미술대학 철학교수로 표기
		신홍유	1947. 10. 29 - 1950. 11. 20	
		박익현	1946 - 1974	후에 미학과 교수
		송병돈	1949. 9. 30 - 1953. 4. 1	『서울대학교 40년사』에는 안병돈 1967. 8. 퇴임으로 표기
		유영국	1948. 4. 15 - 1950. 11. 20	본인은 도안과 교수로 부임하였다고 전함
		박갑성	1950. 5. 31 - 1961. 8. 29	『서울대학교 40년사』에는 1968. 2. 퇴임으로 기재
		박득순	1953. 4. 1 - 1954. 4. 20	
	강사	류경채		1951년 9월 강사
		김병기	1953 - 1957	본인 약력은 1951 - 1958년 재직
조소	교수	윤승욱	1946. 10. 22 - 1950. 10. 2	『서울대학교 40년사』에는 퇴임일을 1950. 6. 기재
		김종영	1948. 3. 10 - 1980. 8. 31	
공예	교수	이순석	1946. 10. 22 - 1970. 2. 28(정년퇴직)	『서울대학교 40년사』에는 조각교수로 기재
	강사	이종근	1953. 4. 1 - 1956. 3. 30	
산업 디자인	강사	조병진	1948. 10. 1 - 1952. 7. 31	
		김익영	1949. 10. 1 - 1952. 7. 31	
		이희태	1952. 4. 1 - 1961. 3. 31	
		한홍택	1953. 4. 1 - 1956. 3. 31	
		존 엘 후랑크	1953. 5. 1 - 1954. 4. 30	

## 1. 교수들의 동향

전쟁 발발 이튿날인 1950년 6월 26일 아침 일찍 교수들은 학교에 출근하였다. 그들은 27일에도 무슨 정보라도 들을까 하여 아침 일찍 학교에 모였는데 교황 사절관에 다녀온 장발 학부장은 걱정 없다며 교수들을 안심시켰다.<sup>11</sup> 하지만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서 좌익계 학생들이 학부장인 장발과 학생과장 윤승욱의 집에 찾아왔으나 이미 그들은 피신한 뒤였다. 윤승욱은 이후 행방불명되어서 좌익 학생들이 찾아왔던 점을 미루어, 납북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우성에 따르면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 들자 학교에서는 좌익학생 중심의 인민재판이 있었다. 그리고는 ‘구 직원은 일단 등교’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학교 비품을 기록하고 교수들을 강의실에 모아 교양교육을 하였다.<sup>12</sup> 교양강사는 김용준이었으며 곧 구 직원 파면령이 내려졌다. 당시 동양화를 전공하던 재학생 성두원은 후에 북으로 갔는데, 그는 ‘의용군에 지원하기 전 예술대학에서 있었던 교직원과 학생들의 모임에서 새롭게 변모된 김용준에 대해 감동받았다’고 『조선력대미술가편람』에 전하고 있다.<sup>13</sup> 인민군 서울 통치 하에서 서울대학교 교직원 전원은 파면되고 김용준을 학장으로 하여 새로운 교수진이 임명되었다. 당시 강의를 나오던 이유태는 충무로 가네보의 미술인열성자대회에 후일을 생각하여 참석하라는 이팔찬의 편지를 받고 장우성과 함께 동맹으로 갔다. 열성자대회의 사회는 서양화가 기용이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이유태와 장우성, 김용준은 나와서 묵묵히 길을 걷다가 헤어졌다.<sup>14</sup> 이후 미대 학장직을 맡은 김용준은 장우성을 찾아왔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갔고 곧 월북하였다.<sup>15</sup>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예술대학 미술부 교수 신분으로 월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월북한 화가들에 대한 미술인의 평가도 적치하 3개월 동안 피난하지 못한 작가들이 동원되어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를 그렸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한 짐이 되었을 것이며 도강파, 잔류파 논란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은 여

11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0.

12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4.

13 리재현, 「성두원」,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514.

14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5.

15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8.



[그림1]

실히 드러난다고 전한다.<sup>16</sup> 서울대 미술부 교수들 사이에서 동맹에서의 활동은 부역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서울 수복 뒤 대한미협 회장인 고희동 집에서 부역자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도강파로 고희동, 이종우, 이마동, 이순석 등이었고 회의에 장우성, 장발, 이종우, 이마동, 이유태, 이순석이 참여하였다. 도강파와 잔류파로 엇갈리는 분위기에서 종군화가단 사무국장을 했던 이세득을 조사위원으로 선출하여 부역자를 색출하였다. 장우성은 노동동원력에 부인이 나가서 마포 쪽에서 징검다리로 쓰일 모래가마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였다.<sup>17</sup> 인민공화국의 심볼을 주로 그렸고 부인이 빨갱이여서 고초를 겪었다는 김환기의 경우와 부역행위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그림1)

부역자심사위원의 조사위원인 이세득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6월 말에 동맹에 나오라고 해서 갔다. 그가 보기에 그곳에는 유명화가로는 ‘안 나온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초상화 등을 그리며 일주일 쯤 지나자 돈이 모자라서 자금을 걷기로 했는데, 이세득은 미술동맹의 자금 조달책을 맡게 되었고 동맹에서 주는 신임장을 받아 기회를 엿보아 도망하였노라고 술회하고 있다.<sup>18</sup> 주요 직책까지 맡았던 이세득은 부역자를 심판하는 위치에, 동맹에서 그림을 그렸던 이들은 심판 대상이 되었으나 장욱진은 김일성 얼굴을 그리지 않고 넥타이만 그렸다고, 김환기는 서기국에 있는 제자 덕에 편하였으며 주로 공화국 심볼을 그렸다고 하여 다른 화가들보다 더욱 부역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했던, 다분히 비논리적인 부역자 심판이었다.

부역자 심사에 이어 미협 위원장인 고희동과 부위원장인 장발은 종군화가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김정열 공군참모총장과 장발 교수는 친한 사이여서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대부분이 공군종군화가가 되었다. 장발, 송병

돈, 김병기, 김정환, 이순석, 장우성 등도 공군종군화가가 되었다.<sup>19</sup> 학교가 휴교인 상태에서 종군화가단에 있던 장우성은 몇몇 교수들과 함께 교육받고 전사관으로 종무하였으나 가족이 그리워 그만두고 부산으로 향하였다.<sup>20</sup>

장우성이 ‘공군종군화가단’이라고 기록했던 조직은 ‘공군미술대’로 보인다. 공군미술대는 작전부 소속으로 1950년 11월에 서울에서 창설되었다. 1.4후퇴 때 미국으로 간 장발 대신 백문기가 단장이 되었으며 1951년 대구로 피난을 간 공군미술대는 공군본부 정훈감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때까지는 공군미술대였다가 1952년 2월 이순석을 중심으로 공군정훈감실 소속 종군화가단을 만들었고 이어 1953년 5월에는 국방부 정훈국 종군화가단의 대구 분단으로 통합, 흡수되었다.<sup>21</sup>

한편 대학 설립 초기에 근무하였던 유영국은 김환기가 서울대 도안과에 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하여 교수직에 합류하였다. “그때는 응용미술과를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서울미대에서 한 2년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고 하였으니 그의 기억에 의존한다면 전쟁 발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 것이다. 유영국이 교수직에 사표를 낸 것은 “그때 <50년미술협회전> 이란 걸 했었어요.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같은 세대로 한국화단의 중심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장발 씨는 좌익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전시회를 경복궁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서울대학에서 교내전이 있었지요. 이 전시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여 사상문제 때문에 장발 교수와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sup>22</sup>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에서는 유영국 교수의 임기가 1950년 11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예정되었던 50년미술협회 창립전 개최일은 1950년 6월 27일이었다.<sup>23</sup>

이승만 정권은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좌익 토벌공세 전에 국민보도연맹 자수기간을 공포하여 자수와 밀고를 조장하였고 이 와중에 좌파 세력은 거의 와해되었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미술가들이나 김만형, 정현웅 등

16 김경승, 「초창기 조각계의 주요 멤버들」, 『계간미술』44, 1987년 겨울, p.49.

17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70.

18 이세득, 「조선조형예술동맹과 월북작가」, 『계간미술』44, 1987년 겨울, p.52.

19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71.

20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76.

21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1983, p.127.

22 「추상회화의 외길 60년—유영국 화백과의 인터뷰」, 『월간미술』, 1996. 10. p.62.

23 김영주, 「민족미술 논쟁과 평론활동」, 『계간미술』44, 1987년 겨울, p.52.



한국전쟁 때 서울의 인민해방공간에서 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한 작가들 중 많은 수가 50년미술협회 회원이었다. 협회 구성원은 1950년 당시 비교적 알려져 있는 작가들이 이데올로기와 경향을 떠나서 순수 미술인의 결집을 외치면서 발족한 단체였다.<sup>24</sup> 또한 최순우도 조선미술문화협회를 탈퇴한 유능한 소장작가로 순수한 창작활동을 뜻하는 화단의 주체세력을 자처한 단체라고 상기하였다.<sup>25</sup> 협회의 중심은 김환기, 남관, 김영주, 유영국, 김병기, 박고석, 이봉상 등으로<sup>26</sup> 후에 김병기가 주장한 좌익미술인들이 주축이 된 미술인 단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영국은 미대 학장이었던 장발이 50년미술협회를 좌익의 작가들로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은 근무하던 미대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였다. 50년미술협회에 대한 장발과 김병기의 증언이 일치하는 셈이다. 회원전을 열기 위하여 한국문화연구소의 자금을 가져오려고 편의상 50년미술협회를 한국문화연구소 산하 단체라고 하였고 그 일을 진행한 것은 김병기였다.<sup>27</sup> 김영주에 따르면 1950년 정초에 우익진영은 체계적인 조직도 없고 비평이나 이론도 좌익에 비해 열세여서 김병기와 자신을 포함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미술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미술의 현대화를 추구하여 우리 미술을 재건, 창조한다는 취지로 조직한 협회가 바로 50년미술협회였던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장발은 유영국을 한국문화연구소 산하 단체에 소속된 50년미술협회 회원이므로 전향해야 할 인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에서 좌익의 색채가 있는 교수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장발은 국방부 산하 종군화가단이나 공군종군화가단 같은 사상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우익의 전방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였다.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1.4후퇴 때 형인 장면의 힘을 입어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교환교수로 떠났다가 1952년 귀국하였다고 알려져 있다.<sup>29</sup>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미국 유학은 1948년 미국무성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1949년 1차 유학에 이어 9.28 수복 후 제2차 유학, 1953년 제3차 유학이 있었다.<sup>30</sup> 장발의 미국행은 바로 서울대 교수의 2차 유학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가이자 피붙이인 장면의 힘을 빌어 도미하였는지, 교수로서 미국 유학에 선정된 예정된 수순에 의한 것인지를 어느 한쪽만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다만 이미 미국 유학을 마친 그에게 다시 미국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인지 그리고 미술대학을 책임진 입장에서 굳이 교환교수라는 신분으로 미국에 가야 했던 것인지는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sup>31</sup> 전쟁 중 미국으로 갔던 미술부 교수는 장발뿐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배경은 미국으로 피난 갔었다는 혐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뒤에 장발학장 배척운동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 2. 학생들의 행보

피난지 대구에서 공군종군화가단에 소속한 단장 백문기는 1950년에 졸업한 1회 졸업생이었고, 부단장 정창섭, 대원 장운상, 권영우는 2회 졸업생, 전상범, 이순복, 김병욱, 이영은, 남용우, 구옥희 등 대부분이 서울대 미대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이었다.<sup>32</sup> (그림2) 하지만 첫 번째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장우성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다. 어느 날 그의 집에는 학생 김천배가 집에 와서 “기를 쫓아야지요” 하며 인민공화국기를 그려 대문에 쫓아주고 사라졌다. 김천배는 미술인열성자대회 후 그를 찾아와 김일성과



[그림2]

24 박고석, 「8.15에서 수복 전후의 화단」, 『화랑』, 1975년 가을호.

25 최순우, 「해방 이십년-미술」, 『대한일보』, 1965. 5. 28-6. 19.

26 이정성, 「解放15年の韓國畫壇」, 『現代文學』, 1960. 8, pp.156-174.

27 이석우, 「북으로 간 작가, 그들만의 책임이었던가」, 『서울아트가이드』, 2008. 5. “해방 후 그는 북조선미술동맹의 서기장, 월남 후에는 방부 종군화가단 부단장, 한국문화연구소 선전국장을 지냈다. 연구소 역할 중의 하나는 좌익 성향의 미술인들이 월북하거나 지하로 잠적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그 뒤 서울대 교수(1951-58)...”

28 김영주, 「해방공간의 미술인들-민족미술논쟁과 평론활동」, 『계간미술』44호, 1987년 겨울호, p.52.

29 이정성, 「한국근대미술자료」, 『한국예술총람자료편』, 대한민국예술원, 1965;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85.

30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69.

31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pp.128-185.

32 백문기, 「나의 공군미술대시절」, 『월간미술』, 1993. 6, p.67. 공군미술대와 공군화가단에 대해서는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54-57 참조.





[그림3]



[그림4]

스탈린 대형 초상화를 그려야 반동분자로 몰리지 않는다고 권하기도 하였던 학생이었다. 장우성은 그의 말에 따라 신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작업에 참여하였다.<sup>33</sup> 미대학생들에 의한 인민재판에서는 장발과 윤승욱을 학생 대다수가 척결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경주 출신 김동철이 장우성은 별 잘못이 없다고 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sup>34</sup> 장우성은 또한 증명서를 얻으려 미술동맹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국대안 반대투쟁 때 퇴학당한 예술대학 서양학과 김진향이 서기국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국대안으로 퇴학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징역까지 살았지만 김진향은 장우성을 위해 “우리 선생님 잘 좀 도와드리라” 하였다.<sup>35</sup> 또한 제자가 서기국에 있어 남다른 대접을 받았다는 김환기의 제자도 바로 그였다.<sup>36</sup>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공부하던 인물들 중 1948년 김창렬과 이용환이, 그리고 1949년에는 김서봉을 비롯한 10명이 서울대 예대 미술부에 입학하였다.<sup>37</sup> (그림3) 성북회화연구소를 다니던 김진향도 이때 서울대학교 미술부에 입학하였다. 서울시 문련 서기장

33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6.  
 34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4.  
 35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67.  
 36 「전쟁 속의 서울미술계」, 『월간미술』, 1990. 6, p.62.  
 37 김서봉, 「하사」, 『조덕환 미수기념화집』, 2002, p.14.

을 하였던 그는 대대적인 좌익세력 색출이 이루어지던 1949년 10월 8일에 검거되었던 터였다.<sup>38</sup> 그는 9.28수복 때 처와 함께 월북하였고 1957년 세계청년미술축전을 관전하였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던 박남재는 하숙집에서 6.25전쟁을 맞았다. 그는 5월 5일 중학교를 졸업하고 등록금을 낸 다음 전차 회수권을 신청해놓았는데, 못 받은 채 전쟁이 났다. 쌀이 떨어져 굶게 되자 7월 13일에 의용군에 지원하러 갔다. “대학생들 의용군에 가면 후방부대에서 거시기 한다고” 그래서 지원하러 갔더니 모집이 끝난 뒤였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sup>39</sup> 그런데 인민군 치하기 순천에서 그는 “그림을 그리니까, 와서 그림을 좀 그리라고 해서 김일성이 초상화를 좀 그렸”다. 국군에 의해 회복되었을 때 부역자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있자 월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미 국군의 진격으로 북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다시 돌아와 회문산에 들어가 인민유격대원이 되었다.<sup>40</sup> (그림4) 삼에서 전깃불도 켜고 신문도 발행하다가 토벌대에 잡혔고 광주 포로수용소에 영어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오지호를 만났고 그에게 감화를 받아 조선대학교 미술학과에 진학하여 서양화가가 되었다.<sup>41</sup>

빨치산이 되어 산을 떠돌던 학생 중에는 하인두도 있다. 그는 1949년 홍익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서울대로 편입하였다. ‘갓 대학에 들어가자 6.25가 일어나 캔버스에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화구통을 둘러메고 피난대열에’ 섰던 그는 인민군에게 재판을 받고 절간 뒤 대숲의 처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친지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sup>42</sup> 그런데 피난가던 중 도망치다가 지리산에서 온 유격대에 붙잡혀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한때 전설적인 유격대장 남도부를 존경했던 그는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초라하고 상호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는 조직이었음에 경악하였다.<sup>43</sup>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에 입학하였으나 그곳을 졸업하지 못한 많은 학생 중에는 북으로 가서 미술가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월북의 이유는 개인별

38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p.24.  
 39 박남재, 「배고파 서울 탈출, 남쪽으로」,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전주문화재단, 2008, p.171.  
 40 박남재, 「전북도당 회문산에 집결」,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p.370.  
 41 「한국문화스토리텔링-서양화가 박남재씨」, blog.daum.net/culturelive/9230979.  
 42 하인두, 「혼불 그 빛의 회오리」, 제삼기획, 1989, p.225.  
 43 하인두,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우리 아이 때려요」, 한이름, 1993, p.271.

로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박남재처럼 인민군 치하에서의 부역행위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월북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경남 창원 출신의 안상목(1928-1990)은 1946년 서울에서 경동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미술학부에 입학하여 1950년 6월 양화과를 졸업하였다.<sup>44</sup> 대학을 다니며 가정교사와 미술에 대한 원고집필로 학비를 충당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에 입대하였고 통신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sup>45</sup> 그는 혁명전통 주제작품 창작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작가로 평가되며 소논문도 집필하며 현대성의 구현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 김제 출신의 김행식(1925-1994)은 미술교육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지만 『조선력대미술가편람』에서 안상목이 서울대에서 그와 함께 공부하였다고 기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서울대 회화과에서 수학하였고 월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유화 작품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회화과 서양화 전공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충남 공주 출신 김장한(1928-)은 경동공립중학교 재학시 반통일정책 시위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길진섭이 소장자로 있던 남산미술연구소에 다녔으며, 1949년 서울대학교 ‘유화과’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이 되어 여러 전투에 참가하다가 1953년 11월에 제대하여 평양 미술대학을 다녔다.<sup>47</sup> 그는 한때 조선미술가동맹 유화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경기 강화 출신의 장성민(1930-)은 배재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유채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전쟁으로 중퇴하고 의용군에 입대’하였다.<sup>48</sup> 북으로 간 그는 1952년 평양미술대학 회화학부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하였다. 많은 활동을 하던 그는 ‘년로한 미술가’로서 대우받으며 1991년 공훈예술가의 칭호를 받았다. 무대미술가이자 평론가인 성두원(1931-)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은호의 제자인 김각렬에게 그림을 배웠고 1950년 충남 강경상업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미술학

부 동양화과에 입학”하였다.<sup>49</sup> 1952년 전투부상으로 제대한 후 1955년 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하여 무대미술가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는 청강생 제도가 있었다. 1년을 기한으로 하였으며 원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었으며 기회가 닿으면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도 있었다.<sup>50</sup> 경북 청도 출신 박상락(1925-1978)은 휘문고보 미술부에서 그림을 공부하였다.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하여 한동안 전념할 수 없었지만 1946년 조선미술동맹에 가입하였으며 “1947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도안과에서 청강생으로 전문미술공부를 하였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에 입대하여 해군에서 병사로서 복무를 하였는데 월북하여 화가로 활동하였고 특히 선전화로 이름이 높았다.<sup>51</sup>

인민군 치하에서 학생들은 인민군의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등 고초를 겪었으며, 수복 후 서울에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부역 혐의조사를 받았다.<sup>52</sup> 하지만 전시에 대학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권계급과도 같았다. 대학생들 대부분은 군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제2국민병으로 차출될 수 있는 연령대였다.<sup>53</sup> 하지만 학생증은 일선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 신분보장증이었으며 국가의 인재를 보호한다는 국가의 정책이기도 했다.<sup>54</sup>

수복이 된 서울에서는 11월 3일 문교부에서 관·사립 연합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문학부, 이학부 음악부, 미술부 등 13개 부를 두어 11월, 12월 2개월 동안 운영되었는데 연합대학에는 500여 명이 재학하였다. 이때 미술전공자들은 미술부로 통합되어 책임자들이 모여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교실난과 추위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고 곧 1.4후퇴에 의해 다시금 서울이 점령되자 전시연합대학은 임시수도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

44 회화과 서양화 전공.

45 리재현, 「안상목」,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480.

46 리재현, 「김행식」,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452.

47 리재현, 「김장한」,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485.

48 리재현, 「장성민」,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513.

49 리재현, 「성두원」,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514.

50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31.

51 리재현, 「박상락」,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453.

52 『서울대학교 40년사』, p.44.

53 뒤에 공군종군화가단이 해체되고 소속했던 작가들을 제2국민병으로 보내려 했을 때 백문기만 군입대를 하고 다른 작가들은 홀어진 것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백문기는 1950년에 이미 졸업하여 일반인의 신분이었다.

54 하인두는 예술대학 미술부 학생증이었던 탓에 학장이 아닌 부장이 만든 학생증은 가짜라고 하여 징집될 뻔한 일화를 전하고 있다. 하인두,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우리 아이 때려요」, 한이름, 1993, p.30.

난지 부산에서 단과대학으로서 예술대학 미술부에서부터 오늘날의 미술대학의 틀을 형성하는, 제도적으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 Ⅲ. 부산 송도의 미술대학

1950년 7월 8일 정부는 대한학도의용대를 결성하였다. 군복무에 학생들을 자진 참여케 하는 모집제였다. 그리고 1953년 5월 2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1차 학도병이 입대하여 향후 다수 학생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sup>55</sup> 그동안 대학은 서울에서부터 내려온 전시연합대학을 1951년 2월 18일, 부산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19일부터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청주, 대전, 제주의 지역별로 교수와 학생 모두가 원래 소속하였던 대학을 묻지 않고 연합강의 형식으로 대학 수업이 재개되었다.

이러한 전시연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51년 5월 4일 문교부령 제19호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 조치령>이 공포되었다.<sup>56</sup> 전시연합대학에서는 단과대학을 문학부, 이학부, 의약학부, 농수산학부, 정치경상학부, 수의학부, 예술학부, 체육과, 가정과로 재편하였다. 1951년 10월 23일 전시연합대학생 등록 총수는 6,455명에 이르렀다. 이때 미술학부는 회화과 80명, 조각과 80명, 응용미술과 80명, 미학과 80명 등 320명이 정원이었다. 근 1년간 연합체제 아래 강의를 진행하던 대학은 1952년 3월 25일, 당국에 의해 전시연합대학 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각 지방에 있는 서울대생 모두가 부산 본교로 복교할 것을 알렸다. 대전, 광주, 전주에도 설치되었던 전시연합대학은 부족했던 교사(校舍)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1952년 3월 30일에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1952년 4월부터 단과대별로 가교사에서 수업하였다. 전시 부산에서의 이러한 조건은 서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울대학을 단과대학별로 가까이 모이게 함으로써 국대안 파동으로 인해 원할치 않았던 대학 ‘기구종합화의 모색’의 일환

이기도 했다.<sup>57</sup>

각 대학은 1952년 9월 1일에 징병제가 실시되자 9월 21일에 징병연기 대상 학생에게 전시학생증을 교부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4,400명의 남학생이 이 신분증을 받았는데,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생에 대한 징집보류로 인하여 대학은 병역기피소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력 손실도 커서 학생들의 정원을 늘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정원도 증가하였다. 1951년에 입학정원이 80명이었던 회화과는 160명으로, 80명이었던 조각과와 응용미술과는 각각 100명으로 미술부에서만 120명의 정원이 증가되었다. 한편 휴전을 앞둔 서울에서는 졸업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진학을 위하여 1953년 4월 약학대학에 분교를 설치하여 신입생들을 받아 교육하였다. 입학생은 372명이었는데 150명의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함께 수강하였다.<sup>58</sup> 본교는 부산에 있고 분교는 서울에 설치된 것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1953년 9월 환도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다시 서울로 옮겨오으로써 본교와 분교가 통합되었다.(그림5)

1953년 1월 15일에 학내에서는 수의대, 음대, 미대 등이 단과대학으로 독립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구성 일부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중앙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어 4월 14일에 독립설치안이 각의를 통과하였고 4월 20일 대통령령 제780호로 공포된 <국립대학설치령>에 의해 미술부는 미술대학으로 승격하였고 4월 25일 미술대학 초대학장으로 장발교수가 임명되었다.<sup>59</sup> 학과도 회화, 조각, 도안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응용미술과 세 과로 편성하였으며 1953년 4월 20일에는 <교육법시행령> 공포로 교과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교양과목 실시에 주력하였다.

1951년 4월 8일 이후 부산으로 피난 가 있는 서울대로 장우성은 귀교하였다.<sup>60</sup> 당시 미술부를 책임지던 장발은 미네소타대학 교환교수로 간 상황이어서 일본 상지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휘문고보에서 장발과 함께 근무하다가 서울대로 옮겨 미학을 가르치던 이재훈이 학장서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그림6, 7)

55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pp.392-393.

56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45.

57 한기언, 『서울대학교의 정신』, 한국학술정보, 2006, p.168.

58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47.

59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59.

60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85.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

“그때 미술대학은 송도(松島) 해수욕장 옆 큰 길가에 있는 일본 요리집 방 몇 개를 빌어쓰고 있었는데 8조짜리 다다미 서너 개를 교수실, 강의실로 나누어 썼다. 8조 방 하나가 교수실 겸 교무실이었고 강의실은 방 둘을 톡 터서 교수와 학생들이 다다미 위에 앉아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배웠다.”<sup>61</sup>

장우성, 김종영, 송병돈, 공형식 교수는 이곳에서 합숙하며 자취하였고 사무과 김창준, 한영삼도 함께 지냈다. 김종영은 1947년에 장발이 근무를 요청하였지만 할아버지의 3년상을 사느라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였다가 1948년 3월 10일에 부임하였다. 전쟁이 났을 때 그는 서울에 있다가 1.4후퇴 때 향리로 갔다가 부산으로 학교가 피난오자 일식집의 교사에 합류하였다.(그림8) 그는 임용되면서 줄곧 고르게 근무하지 않은지라 윤승욱이 피랍된 이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김종영이 장발이 근무했던 휘문학교 출신인 때문에 급하게 교수로 등용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sup>62</sup> 한편 미술학부가 미술대학으로 체재를 바꾼 것은 바로 이 일식집을 교사로 사용하고 있을 때였다. 일식집 앞에서 교수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한 <그림 6>의 뒷배경에는 미술학부의 '부'자가 보이고, 학생들이 담 위에 올라앉아 사진을 찍은 <그림 7>에서는 건물 좌측에 내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간판이 또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피난살이가 자리잡혔을 때 장발 학장이 미국에서 돌아왔고 미술대학은 송도 뒷산 터에 판잣집을 지어 미술대학 간판을 내걸었다. 가교사였지만 전망이 좋았으며 강의실과 실기실도 있었다. 이 가교사는 1952년 2월에 결정된 미8군의 지원으로 민간원조처(CAC)를 통해 가교사 1000교실분의 자재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sup>63</sup> (그림9) 실제로 요리집의 다다미방은 제법 넓었지만 좌식인지라 그림을 그릴 때면 이젤을 세워놓고 바닥에 꾸그리고 앉아 그려야 했다. 그리고 좌식에 맞는 책상이 많지 않은지라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기다란 식당용 의자를 책상 삼아 공부하였다. 그런데 비록 판잣집이긴 하지만 가교사는 교실

61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86.

62 김영나,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조각, 공예, 디자인 작품들」, 『현대미술소장품1』,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p.213.

63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47.

이 여러 개였으며 책상과 의자가 있어 강의를 듣기에도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이었다.<sup>64</sup> (그림10)

그런데 이때 미술대학에는 작은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던 것 같다. 이른바 ‘장발 학장 배척운동’이 그것이었다. 6.25가 발발하자마자 미국의 교환교수로 떠났던 그가 부산 교사로 돌아오자 학생들이 반발하여 배척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부산에 와서 나는 다시 송도의 서울미대에 복교해 다녔다.(그새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미술대학이 돼 있었음) 학교는 어수선했다. 장발 학장 배척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당했고 기한부 정학, 근신 처분을 당한 학생도 더러 있었다.”<sup>65</sup>

장발 배척운동은 1960년에도 있었던 터이지만 이전에 학과목이나 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던 것이 이때 분출하였던 것이다.<sup>66</sup>

홍익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에 편입한 하인두와 달리 평양미술학교를 다녔던 김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입학시험을 치르고 신입생이 되어야 했다. 1951년 9월에 치렀던 학과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이었으며 실기시험은 데생과 수채화였다. 이때는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입학시험이 동시에 있었다.

회화과는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공을 동양화, 서양화로 나누었으므로 김태의 경우 서양화 담당인 송병돈에게 지도를 많이 받았는데 그는 서양화 학과 주임이었다. 당시 수업광경을 보면 회화과는 이젤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유채화를 그리고 있다.(그림11, 12) 박득순의 경우는 서울 동숭동 교사에서 지도를 받았으며 부산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장우성, 노수현은 동양화를 지도하였고 박갑성은 불어와 미학을 가르쳤으며(그림13) 김종영의 조각은 전공자와 선택한 학생들만 수업을 들었다. 재료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조

64 당시 학생 김태의 증언. 2010. 10~11월.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와 이후 교유를 통해 여러 학우들과 많은 사항을 기억해주시고 알려주신 김태 교수님과 정승희 사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자는 김태 교수님의 이웃에 거주하므로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뵈었으며, 그때마다 두 분께서는 언제나 한결 같이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며 친절히 답변하여 주셨다. 두 분을 자주 찾아뵈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연구에 있어서 필자의 행운이다.

65 하인두,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우리 아이 때려요』, 한이름, 1993, p.49.

66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p.296.



[그림9]



[그림12]



[그림10]



[그림11]

繪畫教室光景



각과는 모델을 놓고 직접 흙으로 형태를 잡아가는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14) 교수 김중영과 강사 김세중이<sup>67</sup> 한 공간에서 포즈를 잡은 것으로 보아 함께 학생들을 지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15) 미국을 다녀온 장발이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설한 과목은 사진이었다. 강사 임응식은 사진은 회화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응용미술과 교수인 이순석은 전공자들을 지도하였으며 <용기화>라고 하여 디자인 과목을 이희태가 강의하였다. 이희태의 수업은 구성, 가구설계, 건축설계 관계도 등을 제작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는 해화동성당을 설계했던 건축가이기도 했다. (그림1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최초의 외국인 강사 존 엘 후랑크(재직: 1953-1954)는 응용미술과에서 강의하였다. 당시 학생이었던 권순형은 응용미술과에서 ‘부산 미군부대 산하 문화단체 비전투원인 프랭크’의 구성 과목을 들었다. 그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선을 분할하고 변화와 리듬을 찾는 교육을 보여주었다.<sup>68</sup>

류경채는 서울사범학교에 재직하던 중 6.25가 나자 피난을 간 진해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서울사범학교가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대한미협전>을 하는 동안 서울대 미술학부에서 강사를 채용한다고 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장발학장은 “이력서나 경력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대한미협전에 가서 작품으로 사람을 골라 보자고 제의한 모양”이었다.<sup>69</sup> 그래서 류경채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김태, 권순철, 하인두, 전상수, 심죽자, 이용환 등이 있었다. ‘권순철’에 대해 김태는 권순형의 오기일 것으로 지적하였다.<sup>70</sup>

임응식, 이희태, 류경채의 경우를 보면 강사 채용의 전권이 장발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병기는 부산의 한 다방에서 <피카소와의 결별>이란 글을 1951년 부산에서 썼는데 한 다방에서 화가들을 모아놓고 낭독하였다고 직접 말하였다. 이 낭독이 소문이 나서 당시 서울대의 장우성이 다방에서 강의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67 작가연보에 따르면 김세중은 1950년 3월 대학원 조소과에 입학하였고 1952년 조소과 조교, 1953년 2월 대학원 조소과 졸업, 1954년 조소과 전임강사를 하였다.『김세중』, 서문당, 1996.

68 「개교5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현대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19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6, p.65.

69 류경채, 「1.4후퇴와 피난생활」, 『계간미술』35, 1985년 가을, p.60.

70 류경채가 강사로서 가르쳤다고 하는 이들은 1954년, 1955년 졸업생들이다.『동창회명부』,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1999.



[그림17]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라 하여 송도에 있던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기억하였다. 하지만 그가 이 글을 쓴 것은 1953년이었으므로 그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51년이 아닌 195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학생이었던 김태도 서울로 환도한 뒤부터 김병기에게 강의를 들었다고 전언하고 있다.<sup>71</sup>

오전에는 실기 등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군사훈련을 하는 전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은 거의 없었다.(그림17)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던 수채화 도구로 그리고 유화물감은 비쌌지만 일본에서 들어온 국제시장에 들어온 유화그림 도구 등이 약간 있을 정도였다. 학생들 거개는 물감을 만들어 썼다. 예를 들어 징크화이트는 약국에서 파는 아연화분말을 개서 화이트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도안과 학생들은 포스터칼라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sup>72</sup> 김태는 미군부대 주변에 있었으므로 일본여행 다녀온 미군에게 부탁해서 사용하기도

71 김병기, 「피카소와의 결별」, 『문학과 예술』, 창간호, 1954, pp.90-96. 이 글은 1954년도에 게재되었으나 원래 그는 이미 피카소가 공산당원이 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안락이 피카소도 공산당원이 되었으니 너희같은 조무래기는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선전하였다고 기억하였다. 하지만 정영목의 정교한 글인 「미술과 정치; 피카소의 한국전쟁 관련 작품과 한국·일본의 추상미술 1950-1960」(『월간미술』2003, 6, pp.120-125.)의 내용대로라면 김병기는 1953년에 이 글을 낭독하고 또 썼던 것이다. 이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의 기억에 오차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조선에서의 학살>과 <전쟁과 평화>를 거의 동시에 보았다고 말하였다.(2002년 9월 15일의 직접인터뷰, 2003년 11월 22일의 전화인터뷰)

72 정명목·서용선 진행, 「작가와와의 대담」, 『김태, 1952-197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6.



[그림18]



[그림19]

하였고 시중에는 미군 PX용품으로 주문한 물감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김태는 UNESCO에서 지원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용으로 유화물감, 박스, 캔버스를 나누어 주었는데 물감은 영국의 윈저앤뉴턴(Winsor & Newton)사의 것으로 모두 미국에서 온 것이었다고 전한다.

1952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제4회 미술전이 개최되었다. 서대신동 부산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전람회는 전쟁 중에도 학생들의 의기를 모아 작품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sup>73</sup> 김태는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때 홍남부두의 풍경이 너무도 생생하여 그것을 그렸고 또 송도 가교사에서 내려다 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두 점을 출품하였다.(그림18, 19)

한편 1953년 부산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술인 전체를 자극하는 김종영의 국제전 입상소식이 들렸다. 1953년 5월 10일 『서울신문』은 김종영의 입상 소식을 보도하였다.

“현대미술협회 주최로 방금 개최 중에 있는 국제조각콩쿨전에 한국 작가 3인이 출품한 바 있었는데 그 중 서울대학교 예대 미술부 조각과 주임교수 김종영 씨의 작품 <무명정치수>가 영예의 입상을 하였다고 한다. 이 콩쿨심사 최고책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헨리 무어 씨였고 50여 국에서 총출품 4천여 점이 나왔으며 그 중 130

73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59.





[그림20]

점이 입상되었는데 한국작가의 국제적 진출은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sup>74</sup>

여인 입상인 이 조각은 “그 여인이 정치수인가, 정치수를 생각하고 있는 여인인가. 나는 영국에 출품한 내 작품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받았다. 내가 여인의 나상을 취재한 것은 표현을 위한 수단인 것뿐이다. 다행히 내 정신의 기록이 살아 있다면 이것을 정치수를 위해서 모조리 조공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sup>75</sup> 작품 제목이 ‘무명정치수’가 아니라 전시의 주제 자체가 <무명정치수>였던 것이다. 이 전시는 ‘무명정치수’라는 주제로 세계 조각가들이 주제에 맞는 작품을 나름대로 제작하여 응모한 것을 시상한 것이었다.<sup>76</sup> 한국의 작가 3인이 참가하였다 했는데 1952년 5월 윤효중과 김경승이 출품하기로 하였으며 작품을 접수하였다.<sup>77</sup> 하지만 8월에 문교부는 다시 김종영과 김세중의 추가 참가를 결정하였는데 1년 뒤 김종영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다. 김종영의 국제조각전 입상 쾌거는 한국의 작가들로 하여금 국제전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국제미술에의 조류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그림20)

부산에서 미술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렵던 시절 부산 영도에 있던 대한도자기회사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일은 거의 모든 화가들의 약력에 오를 정도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전쟁이 나자 고향에 가있던 박노수도 부산에 복교하고 도자기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은 작업장 겸 숙소를 배정받아 3, 4명씩 그룹을 지어 일했다. 장우성에 따

르면 도자기회사에는 서울대학생인 김세중, 문학진, 장운상, 박세원, 권영우, 박일순 등이 있었다.<sup>78</sup> 부산에서 피난온 화가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이준도 영도의 대한도자기회사에서 장우성, 장운상, 박세원, 서세옥, 박노수, 권영우, 김세중, 문학진, 박일순 등이 수출용 도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적고 있다.<sup>79</sup>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이란 이미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 급이었다. 1950년 회화과를 졸업한 박세원은 1953년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서세옥과 장운상 등 나머지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당시 학생들이 아닌 기성 작가들로서 대한도자기회사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우성은 학교에서 현미 7, 8되씩을 배급받아 식량걱정은 없었다고 적고 있으므로 전쟁 중에도 교수들의 봉급은 지급되었으며 적어도 교직에 있는 이들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왔다. 6.25전쟁기 교과사에서는 본교생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교사를 운영한 이대를 제외한 홍대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그림을 그렸다. 서울대생이었던 김영중이 홍대로 가고 전퇴진 또한 그러한 경우였으나 북에서 온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등 인재양성의 요람을 실천하였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등록금과 많은 장학금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 치하에서의 부역과 부역자심사 그리고 인민군 치하에서 교수들을 인민재판하거나 부역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심사 등 전쟁의 상흔은 내적 트라우마로 자리하였다. 특히 지나친 반공주의와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하여 교수를 평가한 초대 장발 학장의 전권은 장발 학장 배척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을 강의 내용까지 언급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치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의 일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다.

74 「국제콩쿨에 김종영씨 입상」, 『서울신문』, 1953. 5. 10.

75 최중태, 「김종영의 예술」, 『예술원보』27호, 대한민국예술원, 1983, 12.

76 카탈로그 전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International Sculpture Competition, <The Unknown Political Prisoner>,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Tate Gallery, 14 March to 30 April”. 카탈로그 이미지 최태만 제공.

77 “금년 11월 30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조각대회에 한국의 조각가 윤효중, 김경승 양씨가 출품신청을 하였던 바 정식으로 양씨 출품신청을 접수하였다는 통지가 최근 도착하였다 한다. 그리고 4월 1일까지 세계 56개국의 조각가로부터 2천 5백 점의 출품이 들어왔다고 한다.” 『런던國際彫刻大會서 尹, 金 兩氏 出品을 接受』, 『동아일보』, 1952. 5. 29.

78 장우성,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p.187.

79 이준, 『부산에 온집한 미술인』, 『계간미술』35, 1985년 가을, p.62.

월북과 월남이라는 인적 이동은 이산과 지속성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몇몇은 북에서도 활동하였고, 월남한 미술학도들은 미술대학에서 새로이 미술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전에 의해 서울의 교사가 미군으로부터 학교에 양도되자 서울로 복교하였다. 국대안으로 인하여 교수들이 사직하고 학생들이 퇴교당하는 등의 사건을 겪었고 한국전쟁은 이러한 혼란을 반공우익으로 성격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1960년 장발 학장이 사임할 때까지 극단적인 반공의 기치 아래 운영되었다. 미술대학 설립의 주역이며 당시 정치권의 실세인 배경으로 인해 장발 학장 개인의 성향이 학교 운영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서세옥이 증언한 서양미술사도 중세까지, 성화를 강조하는 등의 강의 내용은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성향 때문이었던 것이다. 결국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추상조각을 한 김종영이나 자유로운 생각의 세계를 그리는 장욱진 등이 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서울대학교가 아카데미즘에 경도되었다고 비판되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이유가 있었다.

미술대학은 전쟁 중인 1951년 14명, 1952년 3명, 1953년도 6명 등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기수들을 길러냈다. 또한 전쟁 중 부산에서 대학원을 운영하여 국내 미술대학 출신의 교육자를 양성하였다. 미국에서 공부한 장발과 일본을 유학한 김종영 등과 달리 국내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작가를 양성하고 교육자를 배출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미술 시대를 연 것이었다. 미술대학의 교육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학적부와 개인 자료 등을 통하여 보다 정치하게 설강 과목과 학점, 운영 등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6.25전쟁 중에도 새로운 미술인들을 양성하였으며,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계유지와 학비를 벌어서라도 학업을 계속하였던 학생들은 뒤에 한국 현대미술계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주제어: 6.25전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장발, 종군화가, 무명정치수, 부산

## 단행본

- 『6.25 전쟁미술 조사연구 보고서』, 전쟁기념사업회, 2008.  
 『김태, 1952-1972』, 서울대학교미술대학, 1996.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전주문화재단, 2008.  
 『조덕환 미수기념화집』, 2002.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장우성, 『화백인맥』, 중앙일보, 1982.  
 정국로, 『한국학생민주운동사』, 도서출판 반, 1995.  
 조은정, 『권력과 미술』, 아카넷, 2009.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하인두,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우리 아이 때려요』, 한이름, 1993.  
 하인두, 『흔들 그 빛의 회오리』, 제삼기획, 1989.  
 한기연, 『서울대학교의 정신』, 한국학술정보, 2006.

## 논문 및 문헌

- 「개교5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현대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19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6, p.65.  
 「국제공쿨에 김종영씨 입상」, 『서울신문』, 1953. 5. 10.  
 「런던 國際彫刻大會서 尹, 金 兩氏 出品을 接受」, 『동아일보』, 1952. 5. 29.  
 「전쟁 속의 서울미술계」, 『월간미술』, 1990. 6.  
 「추상회화의 외길 60년-유영국 화백과의 인터뷰」, 『월간미술』, 1996. 10.  
 「한국문화스토리텔링-서양화가 박남재씨」, blog.daum.net/culturelive/9230979  
 김경승, 「초창기 조각계의 주요 멤버들」, 『계간미술』44, 1987년 겨울.  
 김병기, 「피카소와의 결별」, 『문학과 예술』, 창간호, 1954.  
 김영나,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조각, 공예, 디자인 작품들」, 『현대미술소장품1』,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김영주, 「민족미술 논쟁과 평론활동」, 『계간미술』44, 1987년 겨울.  
 ———, 「해방공간의 미술인들-민족미술논쟁과 평론활동」, 『계간미술』44호, 1987년 겨울호.  
 류경재, 「1.4후퇴와 피난생활」, 『계간미술』35, 1985년 가을.  
 박고석, 「8.15에서 수복 전후의 화단」, 『화랑』, 1975년 가을호.  
 백문기, 「나의 공군미술대시절」, 『월간미술』, 1993. 6.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서울대학교미술대학, 1993.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교수 민주화운동5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이경성, 「한국근대미술자료」, 『한국예술총람자료편』, 대한민국예술원, 1965.

——, 「解放15年の 韓國畫壇」, 『現代文學』, 1960. 8.

이석우, 「북으로 간 작가, 그들만의 책임이었던가」, 『서울아트가이드』, 2008. 5.

이세득, 「조선조형예술동맹과 월북작가」, 『계간미술』44, 1987년 겨울.

이준, 「부산에 운집한 미술인」, 『계간미술』35, 1985년 가을.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정명목 서용선 진행, 「작가와와의 대담」, 『김태, 1952-197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6.

——, 「미술과 정치; 피카소의 한국전쟁 관련 작품과 한국·일본의 추상미술 1950-1960」, 『월간미술』, 2003, 6.

조은정, 「한국전쟁기 남한미술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연구—중군화가단과 유격대의 미술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pp.139-194.

——, 「한국전쟁기 북한미술인의 전쟁 수행 역할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보』제30집, 미술사학연구회, 2008. 6.

최순우, 「해방 이십년-미술」, 『대한일보』, 1965. 5. 28-6. 19.

최종태, 「김종영의 예술」, 『예술원보』27호, 대한민국예술원, 1983. 12.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그림1. 인민군 치하에서의 종로 화신백화점. The Launch of Seoul as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p.71 전제.

그림2. 권영우, <검문소>, 화선지에 먹, 1950, 127×97cm. 『6.25 전쟁미술 조사연구 보고서』 p.71 전제.

그림3. 제1회 입학생 신영현, <전쟁기의 서울>, 종이에 수채, 1951-3. 『6.25 전쟁미술 조사연구 보고서』 p.419 전제.

그림4. 박남재, <인민군과 중국인자원병의 진공에 쥐구멍 찾는 원썬놈들에게 준엄한 복수의 검을 나리는 전북빨찌산>, ‘전라북도 빨찌산 총사령부 기관지’ 『빨찌산』 1951년 1월 1일자.

그림5. 서울분교의 모습. 1953년. 『서울대학교 재부 부산사진첩』 전제.

그림6. 부산 송도 일식집 교사 시절. 미술학부의 ‘부’가 보임. 좌측부터 박갑성 교수, 장우성 교수, 장발 교수. 『화단풍상70년』 p.186 전제.

그림7. 부산 송도 일식집 교사에서의 학생들. ‘미술대학’으로 개편된 간판이 보인다. 『김태, 1952-1972』 전제. 왼쪽 김태, 오른쪽 하인두, 뒤는 홍성문. (김태·정승희 부부 확인)

그림8. 부산 송도에서의 김종영 교수와 박갑성 교수, 1951년. 『김종영 인생, 예술, 사랑』 p.156 전제.

그림9. 재 부산 서울대학교 기념사진첩

그림10. 재 부산 서울대학교 기념사진첩에 수록된 부산 송도 가교사와 장발 학장 모습.

그림 11. 재 부산 서울대학교 기념사진첩에 수록된 회화와 수업 광경.

그림12. 김태, <추정>, 종이에 유채, 1951-52, 35×42.5cm, 『김태, 1952-1972』 전제. 화면 중앙 도자기 바로 뒤의 화구통이 유네스코에서 원조로서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그림13. 재 부산 서울대학교 기념사진첩에 수록된 이론 수업 광경.

그림14. 재 부산 서울대학교 기념사진첩에 수록된 조각과 수업 광경. 좌측 끝 심봉섭, 우측 끝부터 박수룡, 홍성문, 김종영 교수. (김태·정승희 부부 확인)

그림15. 부산 송도 가교사 조각과 수업 광경. 『김종영 인생, 예술, 사랑』 p.197 전제. 왼쪽부터 박수룡, 김종영 교수, 그 우측 아래 송영수, 위 홍성문, 모델, 심봉섭, 하나 건너 김세중, 강태성. (김태·정승희 부부 확인)

그림16. 재 부산 서울대학교 기념사진첩에 수록된 도안과 수업 광경.

그림17. 부산 송도 가교사 앞에서 회화와 일동. 1953년. 『서울대학교미술대학사』 p.229 전제.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박근희, 심죽자, 하나 건너 양복 입은 이 좌측부터 송병돈 교수, 장발 교수, 장우성 교수. 두 번째 줄 우측으로 몸 기울인 이부터 최종걸, 전상수, 김태, 이하경, 하나 건너 이재세, 둘 건너 전명자, 박정수, 이귀향, 김백숙, 나희균, 전병숙, 이인실, 노재우, 김세환. 셋째 줄 가장 왼쪽 흰 셔츠 입은 이부터 전성권, 여섯 번째 최경한, 안재후, 이재세. 맨 끝 줄 좌측에서 세 번째 이용환, 하나 건너 하인두, 하나 건너 민병갑, 박석환, 사진 했던 이용정. (김태·정승희 부부 확인)

그림18. 1952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제4회 미술전에 출품한 김태의 작품 2점. 『김태, 1952-1972』 전제.

그림 19. 김태, <송도해변>, 캔버스에 유채, 65×53cm, 1952. 1952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제4회 미술전에 출품작. 작가 소장. 『김태, 1952-1972』 전제.

그림 20. 김종영, <무명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1953년도 대학신문 기사.